

# 한국어 성상 형용사류의 추출과 그 구문 연구 -어휘-문법론에 근거하여-

정고스란

(프랑스 마흔-라-발레 대학교)

Chung, Gohsran. 2003. A Study of Korean *Sungsang* Adjective Class and Its Constructions Based on the Lexicon-Grammar. *The Linguistic Association of Korea Journal*, 11(2), 17-37. A set of Korean adjectival sentences taking a complex subject noun phrase (NP) of type 'N<sub>a</sub>-ûi N<sub>b</sub>' (N<sub>b</sub> of N<sub>a</sub>) is related to a type of double nominative sentences. Adjectives allowing this relation correspond to a class of adjectives traditionally called *Sungsang* (*adjectives denoting natures and status*). On the basis of the Lexicon-Grammar, we describe semantic, syntactic and lexical characteristics of constructions having *Sungsang* adjectives.

**주제어(Key Words):** Lexicon-grammar, Double nominative construction, *Sungsang* adjectives, Attributive nouns

## 1. 서론

아래 두 구조에 대입되는 두 종류의 문장에서 (1b)는 한국어의 다양한 주격 또는 주어 중출문의 한 유형으로서 흔히 논의되어 오는 예이다.

- (1) a. 명사<sub>a</sub>-의 명사<sub>b</sub>-가 형용사 (예: 코끼리의 코가 길다)
- b. 명사<sub>a</sub>-가 명사<sub>b</sub>-가 형용사 (예: 코끼리가 코가 길다)

이 글은 이 두 구조 관계를 허용하는 '길다'와 같은 형용사 무리를 모두 추출한 후 그 구문을 어휘-문법론 (Gross, M. (1975))의 틀 안에서 통사·어휘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는 전적으로 그러한 어휘부의 추출 문제 및 구문 특질에 논의를 집중하는 바, (1b) 같은 문장에서 각 '명사-가' 형식의 위상이 주어이나 주격이나 하는 문제는 일단 논외로 한

다. 다만, 기본적으로 주어, 목적어, 필수보어 같은 통사 기능이 한 단순문에 한번 나타나며, 동시에 형태격이 동일한 표지를 둘 이상 보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어중출문’보다는 ‘주격중출문’을 주로 쓰겠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이 용어상의 문제이지 이론적인 문제가 아님을 밝혀 둔다.

구조 관계 (1)을 허용하는 어휘들은 전통적으로 성상 형용사라 불리워 오는 한국어의 한 형용사 무리에 해당된다<sup>1)</sup>. 인간이나 사물의 성질 및 상태를 기술하는 형용사를 의미적으로 성상 형용사라 칭하는데, 이 글에서 이러한 형용사들을 형식적으로 정의하고 그 어휘부의 정체를 밝히고자 한다. 한국어 성상 형용사 구문을 다루고 있는 대표적인 앞선 연구로 최현배(1937/1973) 및 유현경(1996, 2000)을 들 수 있다. 최현배(1937/1971 : 482-486)에서는 성상 형용사(속결 그림씨)를 ‘일과 문의 바탈과 모양이 어떠한을 그리어내는 것’이라 하여 이를 ‘감각적, 정의적, 이지적, 행동적, 물리적’인 것 다섯 가지 하위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유현경(1996 : 97-118)에서는 성상 형용사의 격들을 주어 자리에 명사구 하나를 갖는 “NP-가 Adj”와 같은 것으로 정의한 후 이 주어에 대한 속성 주어를 포함하는 형용사구문 “NP-의 NP-가 Adj”의 이중 주어 구문 “NP-가 NP-가 Adj”과의 관계를 기술하였다. 성상 형용사를 직접 다룬 논의로서 성상 형용사의 한 하위 무리인 시각 형용사류에 대한 김창섭(1985), 성상 형용사에 대한 의미적 하위 분류를 시도한 김미형(1989) 및 김남탁(1996) 등이 있다.

이 글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된다. 제 2 절에서는 성상 형용사 구문의 의미·통사적 특질을 살펴본다. 먼저 구조 관계 (1)을 허용하는, 피상적으로 동일한 모든 형용사 구문들을 비교하여 성상 형용사 무리에 속하는 일단의 형용사들을 추출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성상 형용사 구문의 의미·통사적 특질이 밝혀질 것이다. 제 3 절에서는 성상 형용사 구문의 어휘적 특질로서, 명사b 위치의 속성명사라 불리는 명사가 비인물 및 인물 명사의 개념과는 달리 독자적 통사 위상을 갖는 점, 이 구문을 구성하는 요소들의 어휘적 상호 의존성, 형용사와 속성명사 사이의 어휘적 잉여성, 그리고 이러한 어휘적 특성에서 기인한 주격 중출문 유발 조건들에 대해 논의한다.

---

1) 일반적으로 ‘주격중출문’의 범주에 드는 문장들은 기저적으로 (또는 심층적으로) 서로 다른 여러 종류의 구조와 연결된다. 성상 형용사와 관련된 주격 중출문은 그 중의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지만, 어휘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 수가 다른 어느 주격중출문보다 월등하게 많다. 이 때문에 이 구문에 대한 집중적인 통사·어휘적 연구가 주격중출문 전반에 관한 일반적인 논의만큼이나 중요하다.

## 2. 성상 형용사 구문의 의미·통사적 특징

### 2.1. 성상 형용사 무리의 확정

아래 두 형용사 ‘하얗다, 흥미롭다’는 공히 구조 관계 (1)을 허용한다.

- (2) a. 이 건물의 색깔이 (하얗다 + 흥미롭다)  
 b. 이 건물이 색깔이 (하얗다 + 흥미롭다)

그러나 ‘하얗다’와 ‘흥미롭다’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점에서 통사·어휘적으로 자질이 서로 다르다. 먼저 여격 성분을 삽입할 경우, 이 삽입된 성분이 형용사 ‘하얗다’를 가지는 문장에서보다 ‘흥미롭다’를 가지는 문장에서보다 더 필수적인 느낌을 준다.

- (2) c. 둘에게에는 그 건물의 색깔이 (하얗다 + 흥미롭다)

또한 ‘흥미롭다’를 갖는 문장의 경우 아래와 같이 ‘하다’ 접미사를 보유하는 대응 동사를 상정할 수 있지만, ‘하얗다’의 경우 동일 유형의 대응 동사를 상정할 수 없다.

- (2) d. 둘이가 이 건물의 색깔을 (\*하얗한다 + 흥미로워한다)

한국어 어휘부에서 ‘흥미롭다’ 같은 형용사는 심리 형용사로 분류되며 (Nam, J.-S. (1994), 유현경 (1996) 등) 해당 구문이 ‘흥미로워하다’ 같은 ‘-어 하다’ 심리 타동사 구문과 파생 관계에 있음은 잘 알려져 있다 (Park, B.-S. (1974), 서정수 (1975), 김영희 (1984), 김홍수 (1989) 등). 여기서 ‘하얗하다’ 문장의 비문법성은 한국어 어휘부에 이같은 어휘가 존재하지 않는 데서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다음과 같이 부사적 연결 어미를 ‘-게’로 할 경우 문법적인 문장을 얻을 수 있는 점과 대조된다.

- (2) e. 둘이가 그 건물의 색깔을 하얗게 한다

그러나 이 문장에서의 ‘하다’는 ‘흥미로워하다’에서의 접미사 ‘하다’와는 달

리 대동사 ‘하다’로 간주된다. 즉, 이 때의 ‘하다’는 ‘칠하다, 장식하다’를 대신할 수 있다. 심리 동사와의 파생관계를 갖는 ‘흥미롭다’ 같은 경우 대동사 ‘하다’ 구문이 불가능하다.

(2') e. \*돌이가 그 건물의 색깔을 흥미롭게 한다

이러한 분석들을 몇가지 예문에 좀 더 적용해 보면, 피상적으로 동일한 출발 구조, 즉 구조 관계 (1)를 허용하는 형용사들을 통사적으로 구분할 수 있다. 예컨대, 다음 문장의 형용사들은

(3) a. 그 산의 경치가 수려하다

(4) a. 된장국의 맛이 짜다

심리동사와의 파생 관계를 허용하지 않고 대동사 ‘하다’ 구문을 허용한다.

(3) b. \*(사람들이 + 단풍잎들이) 산의 경치를 수려해한다

c. (사람들이 + 단풍잎들이) 산의 경치를 수려하게 (한다+ 장식한다)

(4) b. \*돌이가 된장국의 맛을 짜한다

c. 돌이가 된장국의 맛을 짜게 (한다 + 간한다)

반대로 아래 형용사들은 파생 관계를 허용하고 대동사 구문을 불허한다.

(5) a. (그 산의 경치가 + 된장국의 맛이) (신기하다 + 불쾌하다)

b. 돌이가 (산의 경치를+ 된장국의 맛을) (신기해 + 불쾌해)한다

c. \*돌이가 (산의 경치를 + 된장국의 맛을) (신기하게+불쾌하게) 한다

이 글은 (2)의 ‘하얗다’ 및 (3)(4)에서의 형용사, 즉 구조 관계 (1)에 대입되며 동시에 심리동사와의 대응 구문을 허용하지 않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대동사 구문을 허용하기도 하는 형용사 무리만을 대상으로 한다. 어휘적인 측면에서 보면 (2)의 ‘색깔’과 ‘하얗다’, (3)의 ‘경치’와 ‘수려하다’ 그리고 (4)의 ‘맛’과 ‘짜다’ 사이의 관계가 (2)의 ‘색깔’과 ‘흥미롭다’ 그리고 (5)의 ‘경치, 맛’과 ‘신기하다, 불쾌하다’ 사이의 관계보다 훨씬 더 긴밀한 결합 관계를 보인다. 이러한 긴밀한 결합관계는 명사b 위치의 명사와 관련된 다

음 두 가지 사실로부터 확인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먼저 ‘하얗다, 수려하다, 짜다’를 가지는 문장의 경우 명사b의 생략이 문장의 의미에 영향을 입히지 않는 반면<sup>2)</sup>, ‘흥미롭다, 신기하다, 불쾌하다’의 경우 그러한 생략이 다양한 의미를 내포할 수 있다는 점이다.

(6) (이 건물이 하얗다 + 그 산이 수려하다 + 된장국이 짜다)

(7) (이 건물이 흥미롭다 + 그 산이 신기하다 + 된장국이 불쾌하다)

다음으로 전자의 경우 명사b가 생략된 문장 (6)으로부터 형용사 직전에 ‘색깔, 경치, 맛’ 같은 일정한 명사의 삽입을 예측할 수 있는 반면, 후자의 경우 심리적 감지 대상이 되는 거의 모든 명사가 허용되어 일정 명사의 삽입을 예측할 수 없다는 점이다. 형용사의 속성을 기술해 주는 명사라는 의미에서 전자의 명사들을 속성명사<sup>3)</sup>라 칭한다면 예측 가능한 속성명사의 자동개입 및 생략을 보이는 전자의 구문들을 그렇지 못한 후자의 구문들로부터 쉽게 분리해 낼 수 있다. 이처럼 구성 요소들 사이의 보다 더 긴밀한 결합 관계를 보여주는, 속성명사가 개입된 형용사 무리는 그렇지 않은 무리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어휘부를 형성한다. 이 연구는 전적으로 전자의 구문들만을 연구대상으로 한다.

그런데 다음 문장들에서 보는 것처럼 ‘-어 하다’의 삽입을 허용하지 않음으로서 우리의 분석 대상 구문으로 선택된 형용사들 중에는 목적어 자리를 단순 인물 명사로 대체할 경우 그러한 구문을 형성하는 경우도 한다.

(8) a. 인아의 용모가 (귀엽다 + 예쁘다)

b. \*돌이가 인아의 용모를 (귀여워 + 예뻐) 한다

c. 돌이가 인아를 (귀여워 + 예뻐) 한다

여기서 자료 (8c)에 대해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즉 ‘귀여워하다, 예뻐하

2) 그러나 대부분의 성상 형용사와는 달리 명사b의 생략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주로 소리 및 목소리 등 청각을 기술하는 형용사 (예: 소리가 둔탁하다), 인물명사의 신체를 기술하는 소수의 형용사에서 발견된다 (예: 눈이 부리부리하다) (3.1 참조).

3) Harris (1976)에 따르면 ‘속성명사’를 ‘적정명사 (Nom approprié)’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적정명사는 속성명사의 개념뿐만 아니라 ‘흥미롭다, 신기하다, 불쾌하다’ 같은 형용사와 결합하는 명사b 위치의 명사도 포함하여 보다 더 광범위한 개념을 나타낸다.

다’를 일종의 심리 동사로 보고 순전히 한 실체의 자질을 기술하는 ‘귀엽다, 예쁘다’ 같은 형용사들과는 다른 별개의 어휘부를 형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는 ‘귀엽다, 예쁘다’ 같은 형용사들이 ‘귀여워하다, 예뻐하다’ 같은 심리 동사적 용법으로 쓰인 것으로 볼 수도 있다<sup>4)</sup>. 그러나 어떤 형용사가 (8c)와 같은 문장을 허용한다 하더라도 이 형용사가 앞에서 제시한 기준을 만족시키는 한, 우리의 분석 대상 형용사에 포함시키기로 한다. 즉 위 (8a)의 형용사 ‘귀엽다, 예쁘다’ 류는 기준 (8b) 및 아래 두 가지 기준에 의해 우리의 어휘부를 구성한다.

- (8) d. 인아가 용모가 (귀엽다 + 예쁘다)  
 e. 돌이가 인아의 용모를 (귀엽게 + 예쁘게) (한다 + 꾸민다)

그런데 구조 관계 (1)에 대입되는 것으로, 피상적으로 동일한 또 한 종류의 형용사 구문이 있다. 예컨대 다음과 같은 문장 쌍이 그러하다.

- (9) a. 이 문제의 해석이 쉽다  
 b. 이 문제가 해석이 쉽다

그러나 위 복합 명사구 구문 (9a)는 [명사화]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절주어 구문과 서로 연결된 것으로 절주어가 개입되지 않으면서 복합 명사구를 갖는 (2a)(3a)(4a)의 ‘하얗다, 수려하다, 짜다’ 같은 형용사 구문과는 통사적으로 다르다.

- (9) c. 이 문제를 해석(하는 것이 + 하기가) 쉽다

이 글은 이와 같이 절주어 형용사 구문에서 관찰되는 것과 같은 형용사와

---

4) 실상 성상형용사의 심리형용사적 용법으로의 전이는 흔하다. 이러한 용법의 전이는 목적어 자리에 복합명사구 형태를 그대로 보유할 때에도 가능하다. 그 한 예로서, (8b)와는 달리 ‘돌이가 인아의 마음씨를 (귀여워한다 + 예뻐한다)’가 가능한 점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용법의 전이는 주로 인물 명사의 ‘성격, 용모’ 등을 기술하는 성상형용사에서 주로 나타난다. 또 하나 대표적인 예로 ‘좋다’를 들 수 있는데, 성상(이 국의 맛이 좋다) 및 심리(나는 돌이가 좋다, 나는 돌이를 좋아한다) 형용사로서 뿐만 아니라 절주어를 가지는 구문(이 차를 운전하기가 좋다) 등 동음의이어 또는 다의어로서의 다양한 쓰임을 유도한다.

그 논항과의 결합 관계 또한 논의에서 제외한다.

## 2.2. 성상 형용사 무리의 의미·통사적 정의

앞에서의 이러한 자료의 제약적 논의를 통해 우리는 일단의 형용사 무리를 추출하게 되었는데, 실상 통사적으로 동질적인 이러한 형용사 무리는 전통적으로 성상 형용사로 통칭하는 한국어 형용사의 한 하위 무리에 해당한다. 성상 형용사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의미적으로 성상 형용사는 자연세계의 다섯 가지 감각(오감)을 포함하여 인간 및 사물의 성질·상태를 화자가 감지하여 기술하는 형용사이다. 통사적으로 성상 형용사는 다음과 같은 형식을 허용 또는 불허한다.

- A. 명사a-의 명사b-가 형용사
- B. 명사a-가 명사b-가 형용사
- C. \*(명사-가) (명사a-의 명사b-를) (형용사)-어 하다
- D. \*(절주어-가) 형용사
- E. (명사-가) (명사a-의 명사b-를) (형용사)-게 하다

즉, 성상 형용사 무리는 (A)와 (B)의 관계를 쉽게 도출하는 반면<sup>5)</sup>, 형용사가 (C)에서와 같은 동사와의 파생 관계를 갖지 않으며, ‘명사a-의 명사b’ 형식의 주어 명사구가 (D)에서와 같은 절주어로 대치되지 않는다. 또는 부수적인 기준으로서, 형용사에 따라서는 형식 (E)를 허용할 수도 있다.

이러한 형식적 기준으로부터 우리는 일차적 성상 형용사 목록을 확정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로서도 성상 형용사 구문의 정의를 완전히 형식화 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예컨대 ‘인아(의 + 가) 머리가 크다’에서 ‘크다’는 형

5) 이러한 성상 형용사 구문은 본래적으로 주격중출 형식을 갖는 증상 형용사(돌이(\*의 + 가) 손이 저리다) 및 ‘되다, 아니다’ 구문 등과 대조된다. 또한 성상 형용사 구문의 주격중출문 되기는 언뜻 보기에 자동적인 듯 하지만, 명사의 어휘적 성질에 따라 (B)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3.4절 참조). 이는 심리 및 장면 형용사, ‘있다’ 구문 같은 경우, 관련 명사들이 기저구조의 어휘를 기본적으로 구성하는 한, 주격중출문으로 대체로 자동적으로 도출되는 점과도 대조된다.

- (i) 돌이(에게는 + 가) 인아가 (미답다 + 사랑스럽다)
- (ii) 저 산(에 + 이) 나무가 뻗뻗하다
- (iii) 돌이(에게 + 가) 용기가 있다.

식 (A)와 (B)를 허용하여 성상 형용사에 들지만, 동일 형용사가 ‘인아(의 + \*가) 책이 크다’에서는 형식 (B)를 유도하지 못하여 문제가 된다. 이러한 자료들은 성상 형용사 구문의 정의에 있어서 형용사와 명사b의 관계뿐만 아니라 명사a와 명사b 사이의 관계 또한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함을 시사한다. 이에 대해서는 3.4 절에서 다시 논의하도록 한다.

### 2.3. 문제를 제기하는 자료들에 대한 논의

위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 기준을 통해 성상 형용사 무리의 대부분을 추 출하였지만, 두 가지 형용사 무리는 여전히 문제를 제기한다. 이 절에서는 이러한 자료들에 대해 보다 자세한 논의를 전개하여 성상 형용사 무리의 최종 어휘부를 확정하기로 한다.

먼저 ‘성격’을 기술하는 ‘친절하다, 상냥하다’ 같은 형용사들은 ‘명사a-의 명사b-가’ 형식의 주어와 주격 중출 형식을 허용하며 동시에 동사 ‘-어 하 다’로의 파생 관계를 불허한다.

- (10) a. 돌이의 (성격이 + 태도가) (친절하다 + 상냥하다)
- b. 돌이가 (성격이 + 태도가) (친절하다 + 상냥하다)
- c. \*인아가 돌이의 (성격을 + 태도를) (친절해 + 상냥해)한다

그러나 다음에서 보는 것처럼 절주어를 형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를 제기한다.

- (10) d. 돌이가 인아를 대하는 것이 (친절하다 + 상냥하다)

구조 (10a), (10b), (10c)를 출발점으로 하여 이 형용사들을 성상 형용사에 포함시킬 경우 절주어 불허 원칙에 위배된다. 반면 이들을 이 무리에 포함 시킬 경우 그 정의를 보다 더 정제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근거하여 이 무리 형용사들을 성상 형용사로 간주하기로 한다.

무엇보다 먼저 이 형용사들이 포함하는 절주어의 속성이 우리가 자료의 제약을 통해 배제한 절주어의 속성과 다르다는 사실이다. 예컨대, 위 문장 의 절주어는 그 내부에 ‘대하다’ 같은 특정한 동사만을 허용하는 반면, ‘쉽다’ 같은 형용사의 절주어는 내부 동사가 특정 동사에 한정되지 않는다.



(11) 이 차를 (유지하기가 + 운전하기가 + 타고 내리기가) 쉽다

뿐만 아니라 (10d)의 경우, 보문자 ‘것’ 대신에 특정 명사 ‘태도’를 대체할 수 있는데, 해당 형용사와 이 머리 명사 ‘태도’ 사이, 그리고 이 후자와 절주어 내부의 동사 ‘대하다’ 사이에 강한 어휘적 적정성이 존재한다. 이 세 요소들 간의 강한 어휘적 적정성은 ‘태도’와 동의어로 간주되는 ‘행동, 성격, 성품, 기질’ 같은 다른 명사들이 그 머리 명사로 허용되지 않는 점에서 설득력을 얻는다. 결국 ‘태도’와 동의 관계에 있는 이러한 명사들을 모두 허용하는 유일한 구조는 (10a) 같은 ‘명사a-의 명사b-가’ 형식을 주어로 가진 구조이다.

다음으로 성격을 기술하는 많은 형용사들 중에는 (10d) 같은 절주어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12) a. \*돌이가 인아를 대하는 것이 (겁약하다 + 깔끔하다)

이 형용사들은 ‘태도, 행동’ 같은 명사보다는 ‘성격, 천성’ 같은 명사를 그 속성명사로 하는 것이 보다 더 자연스럽다.

(12) b. 돌이의 (\*태도+??행동 +성격 +천성)가/이 (겁약하다 + 깔끔하다)

이러한 점에서 ‘명사a-의 명사b-가’ 형식의 복합 명사구 구문을 ‘친절하다, 상냥하다’ 무리와 ‘겁약하다, 깔끔하다’ 무리의 형용사들의 통사적 동질성을 포괄하는 구조로 삼을 수 있다.

성격을 기술하는 형용사들 중 많은 수가 절주어 내의 ‘명사-를’ 성분이 형용사의 직접적인 ‘명사-에게’ 보어와 연관성이 있는데, 절주어를 허용하지 않으면서 성격을 기술하는 ‘겁약하다, 깔끔하다’ 같은 형용사들은 ‘-에게’ 보어도 허용하지 않는다.

(10) e. 돌이는 인아에게 (친절하다 + 상냥하다)

(12) c. \*돌이는 인아에게 (겁약하다 + 깔끔하다)

우리는 이러한 형용사들이 모두 ‘명사a-의 명사b-가’ 형식의 구조를 갖는 것으로 출발하여 이 명사구의 제약적인 절주어와의 대치 및 ‘-에게’ 보

어와의 결합 양상 같은 몇 가지 특성들을 포괄할 수 있는 방안을 상정하려는 것이다. 결국 이 무리의 성상 형용사들은 다른 성상 형용사들과는 다른 이러한 고유 속성을 보유하지만, 구조 관계 (1)을 형성하는 점에서 다른 성상 형용사 구문들과의 동질성을 인정한다는 것이다. 실상 우리는 ‘친절하다, 상냥하다’ 류의 형용사를 ‘겁약하다, 깔끔하다’ 류의 형용사와 전혀 별개로 처리할 특별한 이유를 찾지 못했다. ‘성격’이라는 인간의 내면적 특질이 다른 인간에 대한 상대적이며 일시적인 ‘행동, 태도’로 반영되거나, 반대로 ‘행동, 태도’ 같은 일시적 특질이 ‘성격’으로 관습화 또는 내면화 될 수 있는데서 이 무리 형용사의 다양한 통사구조가 유도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음 형용사들은 ‘기분, 마음, 분위기’ 같은 인간의 마음 상태 또는 여러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는 한 공간의 상태를 표현한다.

(13) a. 돌이의 기분이 (맹송맹송하다 + 시들먹하다)

(14) a. 이 방의 분위기가 (화기애애하다 + 살벌하다)

특히 (13a)의 형용사들은 일종의 심리 현상을 표현한다는 점에서 의미적으로 심리 형용사로 볼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또는 심리적 증상을 표현한다는 점에서 Nam Jee-Sun (1994)의 증상 형용사 또는 유현경 (1996)의 감각 형용사와도 일종의 연관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의미적 특성과는 달리 이 형용사들은 앞에서 정의한 성상 형용사의 정의, 즉 ‘-어 하다’ 구문 및 절주어 구문 불허 원칙을 대체로 만족시킨다.

(13) b. \*인아는 돌이의 기분을 (맹송맹송해 + 시들먹해)한다

c. \*돌이가 느끼는 것이 (맹송맹송하다 + 시들먹하다)

(14) b. 사람들이 이 방의 분위기를 (\*화기애애해 + ??살벌해)한다

c. \*이 방이 지닌 것이 (화기애애하다 + 살벌하다)

이러한 류의 형용사들을 육체적 증상을 표현하는 Nam J.-S. (1994: 177-187)의 증상 형용사와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은 차이점을 보인다. 즉 증상 형용사는 ‘느끼다’를 주동사로 한 복문을 쉽게 구성하는데,

(15) a. 돌이가 배가 (아프다 + 고프다)

b. 돌이가 배가 (아프다고 + 고프다고 + 아리다고) 느낀다

심리적 증상을 표현하는 (13)의 경우 위와 같은 ‘느끼다’ 구문을 구성할 경우 어휘적으로 잉여성을 띄어 다소 부자연스럽다.

(13) d. ??돌이가 마음이 (맹송맹송하다 + 시들먹하다)고 느낀다

그러나 다음과 같이 ‘기분, 마음’ 같은 명사를 서술 명사로 하고 ‘느끼다’를 기능동사로 가지는 구문과는 문법적인 등가 관계를 형성한다. 반대로 증상 형용사의 경우 기능동사 ‘느끼다’ 구문을 쉽게 형성하지 못한다.

(13) e. 돌이가 (맹송맹송한 + 시들먹한) 마음을 느낀다

(15) c. ?\*돌이가 (아픈 + 고픈 + 아린) 배를 느낀다

‘분위기’를 기술하는 형용사의 경우 양상이 조금 다르다. 명사a 위치의 비인물 명사로 인해 이러한 ‘느끼다’ 구문을 허용하지 않지만, 비인물 명사를 한 공간을 차지하는 사람들로 대체할 경우 두 종류의 ‘느끼다’ 구문을 동시에 허용한다.

(14) d. 사람들이 분위기가 (화기애애하다 + 살벌하다)고 느낀다

e. 사람들이 (화기애애한 + 살벌한) 분위기를 느낀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큰 차이점은 증상 형용사는 복합명사구를 구성하지 못하지만, (13, 14)의 형용사들은 복합명사구 주어를 기저(즉 (13a) (14a))로 보유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형용사들도 성상 형용사로 분류할 수 있다. 이 무리의 많은 형용사들은 ‘마음, 기분’과 ‘분위기’를 동시에 기술한다<sup>6)</sup>.

이상으로 우리는 형식 A, B, C, D, E를 만족시키는 성상 형용사 무리를 최종적으로 확정하게 되었다<sup>7)</sup>. 성상 형용사 무리의 실제적인 추출 작업은 어휘-문법론의 틀 내에서 한국어 형용사 어휘부를 구축한 기존의 연구 Nam J.-S. (1994)으로부터 주어로서 ‘명사a-의 명사b’ 형식을 취할 수 있

6) 느긋하다, 산뜻하다, 시들먹하다, 쓸쓸하다, 음울하다...

7) 성상 형용사는 어휘·의미적으로 크게 자연세계의 오감을 나타내는 무리 (오감 형용사:달다, 시금하다, 향긋하다, 붉다, 크다, 촉촉하다, 거칠거칠하다...)와 그렇지 않은 무리 (비오감 형용사:착하다, 가난하다, 부유하다, 친절하다, 쓸쓸하다, 음울하다, 출다, 산뜻하다...)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형용사들의 통사적 양상에 대한 보다 세밀한 연구가 필요하다.

는 모든 어휘를 수집함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의 5300여 개에 이르는 형용사 어휘 목록에서 절반 이상 (약 3000개)이 앞 절의 제약적 기준에 의해 선택되었다. 한국어 성상 형용사가 전체 형용사 목록에서 차지하는 이와 같은 높은 어휘수는 유현경 (2000)에서도 밝혀진 바 있다. 유현경 (2000:248)에 의하면 말뭉치 빈도수에 따라 확보한 2926 개의 형용사 중 77.5 퍼센트가 성상 형용사 류에 속하며 그 나머지 퍼센트가 11개에 달하는 다른 하위 형용사 무리를 구성한다.

### 3. 성상 형용사 구문의 어휘적 특질

#### 3.1. 속성명사의 독자성

모든 성상 형용사 구문은 ‘명사<sub>a</sub>-의’ 형식의 ‘명사<sub>a</sub>-가’ 형식으로의 대체로 규칙적인 변이 양상을 보이는데, 이러한 변이는 형용사와 그 직전의 명사<sub>b</sub> 사이 그리고 이 명사와 그 왼쪽의 명사<sub>a</sub> 사이에 존재하는 긴밀한 결합 양상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우리가 속성명사로 통칭하는 명사<sub>b</sub>는 유현경 (1996)에서 속성주어 그리고 Nam J.-S. (1994)에서 잉여명사 또는 분류명사로 지칭되는데, 이 두 연구에서는 이러한 명사를 잉여적이며 의미적인 정보로 간주하여 기저 구문의 정의에서는 배제한다. 그러나 이러한 명사들은 성상 형용사 구문에 너무나 규칙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러한 관점으로는 이 구문의 통사·어휘적 정체를 사실상 제대로 밝히기가 어렵다. 문제는 오히려 한 무리의 형용사와 결합하는 속성명사의 수가 너무 많아 이를 어떻게 적절하게 분류할 것인가 하는 데에 있다. 예컨대 ‘용모’를 기술하는 형용사 ‘훤칠하다’는 ‘용모’와 동의어로 ‘외모, 체격, 몸매, 몸, 생김새, 풍채, 겉모습’ 같은 다양한 어휘를 허용한다. 이 글에서 구축된 어휘부는 형용사를 중심으로 한 ‘철저성’, 즉 정의된 형식에 대입되는 모든 형용사의 추출이라는 원칙에 부합한다. 따라서 하나의 형용사와 결합할 수 있는 모든 속성명사 그리고 성상 형용사를 결정짓는 총망라적인 속성명사들에 대한 연구가 또한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한국어 어휘부에서 성상 형용사가 차지하는 높은 어휘수를 고려할 때 그 하위 분류 작업이 필수적으로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이러한 분류 작업에 있어서 단순 유일 명사 형식의 주어가 아니라, ‘명사<sub>a</sub>-의 명사<sub>b</sub>-가’ 형식의 복합 명사구 주어를 허용하는 구조를 그 기저로 삼을 때에 제대로 그 목적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

다. 결국 이 연구에서는 유현경 및 Nam J.-S.에서와는 달리 성상 형용사 구문에서의 속성명사의 존재의 독자성, 즉 속성명사가 다른 일반 명사와 무관하게 독자적인 위상을 가짐을 기본적인 시각으로 삼는다.

속성명사의 이러한 독자성은 다음과 같은 두가지 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모든 속성명사는 피상적으로 비인물 명사에 해당하는 듯 하지만, 이를 단순히 비인물 명사로 취급할 수는 없다. 무엇보다도 먼저 이러한 명사들은 비인물 명사의 개념을 형식화해주는 ‘무엇’ 의문문 형성 및 ‘그것’ 대명사화 같은 통사적 기제들을 대체로 허용하지 않는다.

(16) a. 그 학생은 (성격이 + \*무엇이 +\*그것이) 상냥하다/니?

(17) a. 그 학생은 (몸이 + \*무엇이 +\*그것이) 뚱뚱하다/니?

또한 대개의 인물 및 비인물 명사들이 분열문의 초점 위치에 올 수 있는 반면, 속성명사는 이 위치에 올 수 없다.

(16) b. \*그 학생이 상냥한 것은 성격이다

(17) b. \*그 학생이 뚱뚱한 것은 몸이다

속성명사의 독자성을 인정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이 명사의 삭제 양상이 불규칙하다는 사실에서 찾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서로 다른 속성명사가 개입된 다음 문장들은 모두 구조 관계 (1)을 형성하지만, 각 속성명사를 삭제했을 때 통사적으로 서로 다름을 알 수 있다.

(18) a. 돌이의 (용모가 애따다+ 목소리가 찌렁찌렁하다+ 목이 길쭉하다)

b. 돌이가 (용모가 애따다+ 목소리가 찌렁찌렁하다+ 목이 길쭉하다)

c. 돌이가 (애따다 + \*찌렁찌렁하다 + 길쭉하다)

형용사 ‘애따다’의 경우 속성명사의 삭제 이전 및 이후 사이에 의미적 유사성이 유지되지만, ‘찌렁찌렁하다’의 경우 삭제로 인해 비문을 형성하며 ‘길쭉하다’의 경우 삭제 이전과 이후의 문장 사이에 가벼운 의미적 차이가 발생한다. 이는 같은 속성명사라 하더라도 동일한 차원에서 다를 수 없으며 나아가 속성명사의 통사적 독자성을 동시에 인정해야 함을 의미한다.

### 3.2. 성분들 간의 상호 의존성

명사b 위치의 명사가 나타나지 않은 성상 형용사 구문에서 이 명사를 복구 또는 삽입하고자 할 때, 그 복구할 명사는 대체로 형용사의 어휘적 특질에 달려있다. 예컨대, 다음과 같이 서로 다른 형용사는 각각 ‘성격, 행동, 생활’ 같은 서로 다른 속성명사의 삽입을 허용한다.

- (19) a. 돌이는 (고지식하다 + 민첩하다 + 부지런하다)  
 b. 돌이의 (성격이 고지식하다+행동이 민첩하다+생활이 부지런하다)

형용사에 따라서는 명사a 위치에 인물 명사와 비인물 명사를 동시에 취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 흔히 이 인물이나 비인물이나에 따라 서로 다른 속성명사가 복구된다.

- (20) a. (돌이는 + 그 강의실은) 거대하다  
 b. (돌이의 몸집이 + 그 강의실의 규모가) 거대하다

이는 성상 형용사 구문의 관련 세 가지 요소 (즉 인물 및 비인물 명사, 속성명사, 형용사) 사이에 어휘적 상호 의존성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복구 또는 삽입할 속성명사가 형용사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명사a의 인물 및 비인물 명사에도 동시에 의존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어휘적 상호 의존성은 이 유형의 구문에 존재하는 매우 특징적인 사실이다.

그러나 (20)에서처럼 한 형용사를 공유하는 명사a의 인물 및 비인물의 의미 자질의 차이만으로 복구할 속성명사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예컨대, 아래 형용사들은 공히 비인물 명사a를 취하지만, 복구할 속성명사는 각 명사a에 따라 다르다.

- (21) a. (이 소설은 + 이 음악은) (격렬하다 + 격하다)  
 b. (이 소설의 내용이 + 이 음악의 리듬이)(격렬하다 + 격하다)

이는 형용사 하나 하나에 대한 개별적인 기술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명사들끼리의 결합 양상들에 대해서도 일일이 검토해야 하는 것으로 성상 형용사 구문의 기술이 쉽지 않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들은 다음 절

에서 논의하는 바, 한국어 성상 형용사 어휘부의 일반적인 특성에 비하면 사소한 문제일 수 있다.

### 3.3. 형용사와 속성명사의 어휘적 배타성 및 잉여성

한국어 성상 형용사는 그것이 무엇을 기술하느냐에 따라 흔히 특징적인 속성명사와 결합한다. 예컨대, 다음 각 무리의 형용사들은 ‘촉감, 목소리, 날씨, 성격’의 부드러움을 기술하는데, 각 무리가 이들 각 해당 속성명사와 거의 배타적으로 결합한다.

‘촉감’과 결합하는 무리 : 보들보들하다, 보삭보삭하다, 보송보송하다, 야들야들하다, 야드르르하다, 흐르르하다, 홀부드르르하다

‘목소리’와 결합하는 무리 : 나직나직하다, 나직하다, 은은하다, 잔잔하다

‘날씨’와 결합하는 무리 : 너누룩하다, 누긱하다, 눅다, 포근하다, 푸근하다, 폭폭하다, 폭하다, 푸하다

‘성격’과 결합하는 무리 : 나긱나긱하다, 나릿나릿하다, 여리다, 온유하다, 온화하다, 인후하다, 온후하다

이 형용사들은 모두 불어의 doux (부드럽다)란 하나의 형용사에 해당하는 데, 이들을 불어에서처럼 비인물 및 인물 명사와 결합하는 형용사로 양분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예를 들어 Nam J.-S. (1994)의 분류에 의하면, 첫 세 무리가 ‘비인물 주어 형용사 류’로 그리고 마지막 무리의 일부가 ‘인물 주어 형용사 류’로 분류된다.

한국어 성상 형용사의 또 하나의 어휘적 특징은 명사구 내의 명사<sup>a</sup>가 인물 명사이냐 비인물 명사이냐에 따라 속성명사가 선택적으로 결합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불어에서 인물 명사와 결합하는 속성명사가 비인물 명사와도 흔히 결합하는 현상과 대조된다. 예를 들어 불어의 apparence는 인물 명사와 비인물 명사를 동시에 기술하지만, 한국어에서는 인물 명사일 때는 ‘외모, 용모’를 그리고 비인물 명사일 때는 ‘외관, 외양’을 기술하는 것으로 그 결합 어휘 자체가 다르다.

한국어 성상 형용사 어휘부의 마지막 특징은 한국어가 다른 어느 유럽 언어보다 어휘적으로 상당히 잉여적인 언어라는 사실과 연관이 있다. 예를 들어 한국어에서는 ‘이 자의 길이가 길다<sup>8)</sup>, 이 자가 길이가 길다<sup>9)</sup>’는 ‘이

자가 길다'라는 문장만큼이나 문법적인데, 첫 두 문장에 해당하는 불어 문장은 완전히 비문법적이다. 한국어에서 '이 방의 천정이 높다<sup>10)</sup>'는 것은 '이 방의 천장의 높이가 높다<sup>11)</sup>'는 것을 포함하지만, 이 구문들을 번역한 불어 문장은 그 문법성이 의심스럽거나 비문법적이다. 반면, 불어에서는 속성명사가 삭제된 (또는 표현되지 않은) 문장<sup>12)</sup>이 가장 문법적인데, 해당 한국어 문장 '?\*이 방이 높다'는 그 문법성이 의심스럽다.

한국어의 이러한 어휘적 특성들은 단문 수준에서 논항을 하나 갖는 형용사 구문의 분류에 있어서, 불어에서와 같은 비인물 및 인물 명사에 근거한 분류가 그다지 의미가 없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어휘적 특성들은 해당 어휘부, 즉 성상 형용사의 어휘 수를 늘리게 만든 중심 요인이 되는데, 의미·통사적으로 동일한 한 어휘에 대한 형태소수적 변이형들의 존재<sup>13)</sup>가 그 어휘부를 늘리게 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 3.4. 주격 중출문을 유도하는 조건

성상형용사 구문에서 주격 중출문을 유도하는 가장 일반적인 조건은 해당 형용사와 그 직전의 명사 사이에 어휘적 적정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적정하지 않은 명사가 올 경우 복합명사구 구문뿐만 아니라 주격 중출구문도 불가능하다.

- (22) a. 이 꽃(의 + 이) 냄새가 향기롭다  
 b. \*이 꽃(의 + 이) 색이 향기롭다

적정성 조건은 반드시 성상 형용사 구문에만 개입되는 것은 아니다<sup>14)</sup>. 다

8) 불어: \*La longueur de cette règle est longue.

9) 불어: \*Cette règle est longue de longueur.

10) 불어: ?\*Le plafond de cette chambre est haut.

11) 불어: \*La hauteur du plafond de cette chambre est haute.

12) 불어: Cette chambre est haute.

13) 가슬가슬하다, 까슬까슬하다, 거슬거슬하다, 꺼슬꺼슬하다, 가칠가칠하다, 까칠까칠하다, 거칠거칠하다, 꺼칠꺼칠하다, 가칫가칫하다.....

14) 어휘-문법론에서 주로 논의되는 이러한 적정성 개념은 한국어 성상 형용사 구문에서 관찰되는 속성 개념 (2.1절 참조)과는 달리 복합 명사구와 관련된 다양한 구문들을 포용한다. 명사가 속성적 해석을 갖는다는 의미에서의 한국어 '속성명사'에 해당할 만한 유럽어에서의 개념을 정확하게 지정하기는 어렵다. 이처럼, 한국어 문장



른 종류의 형용사 구문 (2.1 절 참조)에서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동사 구문에도 개입되는 상당히 일반적인 조건이다<sup>15)</sup>. 그러나 제 2 절에서 논의한 바, 일련의 형식적 기준에 의해 추출된 성상 형용사 구문에서 이 조건은 주격 중출문을 유도하는 필수 조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정성 조건이 주격 중출문을 유도하는 충분한 조건이 못되어 다른 조건으로부터 보완될 필요가 있다.

아래 문장 (23a)는 주어 위치에 ‘명사<sub>a</sub>-의 명사<sub>b</sub>’ 형식의 명사구가 온다는 점에서 그리고 ‘책’과 ‘큼직하다’ 사이의 어휘적 적정성을 완전히 부인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문장 (22a)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격 중출문을 유도하지 못한다.

- (23) a. 돌이의 책이 큼직하다  
b. \*돌이가 책이 큼직하다

이는 주격 중출문의 가능성 여부가 형용사와 속성명사 사이의 결합 관계뿐만 아니라 주어를 구성하는 두 명사 사이의 결합 관계에 의해서도 조건지어짐을 의미한다. 따라서 (23a)로부터 주어 명사구의 어휘를 다음과 같이 구성할 경우 주격 중출문을 유도할 수 있다.

- (24) a. 돌이(의 + 가) 머리가 큼직하다  
b. 책(의 + 이) (모양이 + 크기가) 큼직하다

신체 부위 명사가 개입된 전자의 문장을 흔히 양도불가 소유 구문이라 칭

‘그 건물의 높이가 높다’에서 ‘높이’의 속성적 해석은 불어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데, 대신 ‘그 건물의 높이가 (굉장하다 + 놀랍다)’라고 해야 불어에서 올바른 문장이 된다. 3.3 절에서도 논의한 바, 한국어에서는 어휘적 잉여성이 반드시 비문을 유도하지는 않는다. 또한 불어를 중심으로 한 어휘-문법론에서는 속성명사의 개념이 논의된 바 없는데, 이는 많은 어휘수를 보유하는 한국어 성상 형용사 무리와는 달리 이에 버금가는 불어 어휘수가 상대적으로 빈약한 점과도 관련이 있다.

15) 이 조건의 이러한 일반성은 복합 명사구를 구성하는 많은 구문들이 동일격 중출문을 구성할 수 있음에서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 (i) 이 도시(에의 + 가) 접근이 무난하다  
(ii) 별레가 버드나무(의 + 예) 잎사귀에 붙었다  
(iii) 돌이가 인아(의 + 를) 팔을 비틀었다  
(iv) 돌이가 인아(의 + 를) 성격을 좋아한다.

하는데, 이처럼 양도불가성 조건이 두 명사 사이에 개입될 수도 있다. 후자의 문장은 (23a)에서 ‘책’과 ‘큼직하다’ 만을 취한 후 이 두 어휘 사이에 ‘모양, 크기’를 삽입한 것으로 ‘책’과 ‘큼직하다’ 사이보다는 ‘모양, 크기’와 ‘큼직하다’ 사이가 보다 더 긴밀하게 적정성 조건이 유지된다. 그런데, ‘모양, 크기’ 같은 속성명사는 신체부위가 개입된 문장 (24a)에도 삽입 가능하다.

(24) c. 돌이(의 + 가) 머리(의 + 가) (모양이 + 크기가) 큼직하다.

이처럼 적정성이 형용사와 그 가장 가까운 명사 사이의 조건이라면, 양도불가성은 속성명사와 그 왼쪽의 명사 사이의 조건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명사 사이의 조건은 다음과 같은 인척 관계에 의해서도 이루어진다.

(25) a. 김사장(의 + ?\*이) 차가 예쁘다  
b. 김사장(의 + 이) 딸이 예쁘다

전자의 ‘김사장’과 ‘차’ 사이가 일반적인 소유관계 (이를 양도 가능 소유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라면 후자의 ‘김사장’과 ‘딸’ 사이는 인척관계라 할 수 있다. 이 때 후자의 경우에만 주격 중출문이 가능하다.

동일한 형용사임에도 불구하고 결합된 두 명사의 어휘적 자질에 따라 주격 중출문이 되기도 하고 안되기도 하는 것은 다음 일련의 문장들에서도 관찰된다.

(26) a. 돌이(의 + 가) 옷이 깨끗하다  
b. 이 잔치집(의 + ?\*이) 음식이 깨끗하다  
(27) a. 도꼬(의 + 가) 집들이 좁작하다  
b. 도꼬(의 + \*가) 방들이 좁작하다

(26a)에서의 두 명사가 서로 인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의미에서 이를 인접관계로 그리고 (27a)에서의 두 명사가 단위별로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에서 단위 관계로 칭한다면, 이러한 관계 또한 주격 중출문을 유도하는데 영향을 입힌다. 즉 (26a)의 경우 ‘옷’이 한 개인의 신체에 부착되었을 때 그 사람의 품격을 대표하는 자질로 볼 수 있지만 (26b)의 경우 한 잔치집의 당일 음식의 자질이 그 잔치집을 대표하는 자질로 보기 힘든 데서 주격 중

출문의 유도 가능 여부가 결정된 것이라 볼 수 있다<sup>16)</sup>. 또한 (27a)처럼 명사들 사이의 관계가 큰 단위로부터 작은 단위로 오른쪽 방향으로 단계별로 연결될 때 쉽게 주격 중출문이 유도된다. 그러나 단위관계가 단계별로 연결되지 않은 (27b)에서는 주격 중출문이 쉽게 유도되지 못한다.

이처럼 제한된 몇 가지 명사들끼리의 관계에 의한 주격 중출문 유도 조건을 살펴보았다. 명사들끼리의 관계에 대한 보다 더 자세한 논의는 모든 종류의 명사들의 결합 관계를 조사하여 새로운 조건을 찾는 것으로 보다 더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이 글에서 제시한 조건은 그러한 다양한 명사의 결합 관계의 일부임을 더불어 밝힌다.

## 5. 결론

이 글에서는 한국어 어휘부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성상 형용사 무리를 어휘-문법론에 근거하여 그 어휘부를 확정된 후 해당 구문을 형식적으로 정의해 보았다. 한국어 문법틀 내에서 흔히 논의되는 성상 형용사 구문은 주격중출문 및 양도불가소유 구문과 겹쳐 생성문법론에서도 다양한 논의가 제시되기도 했다. 생성문법에서는 ‘명사-가’ 형식이 두 번 나타난 문장에서 이 형식이 주어인가 아니면 주격인가 하는 문제 그리고 심층 및 표층 구조의 설정 문제 등이 중요한 논의를 차지한다. 반면, 어휘-문법론에 근거한 이 글에서는 복합 명사구로 된 주어 구문과 주격중출 구문 사이의 관계를 통사적으로 등가인 것으로 가정한 후 이러한 관계를 나타내는 모든 어휘를 ‘철저성’을 중심으로 추출하는 논의에 집중했다. 그러나 이러한 실제적인 어휘부 추출 문제뿐만 아니라 어휘-문법론에서도 이론화의 경향이 전혀 배제되지 않는데, 복합명사구 구문과 주격중출 구문의 관계를 ‘재구조화 (Restructuration)’라는 변형 연산을 통해 기술하는 점을 들 수 있다. 재구조화는 복합명사구 구문에서 복합명사구를 구성하는 두 개의 성분이 통사적으로 독립적인 별개의 성분으로 떨어져 나가는 현상은 일컫는데, 한국어의 경우 그것이 주격 중출 형식으로 표현된다는 것이다 (Guillet & Leclère (1981) 참조). 재구조화에 의해 도출된 주격중출문에서 두 개의 ‘명

16) 이러한 인접성은 다양한 명사 관계로 확대될 수 있는데, 다음과 같은 경우 자연스럽게 중출문을 유발한다.

- (i) 이 식당(의 + 이) 음식이 짜다
- (ii) 그 옷가게(의 + 가) 옷이 예쁘다.

사-가' 형식의 통사적 독립성은 분열문 및 관계문 형성, 의문문 형성, 그리고 어순 변이 등을 통해 증명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이론적 논의를 배제하고 성상 형용사의 어휘부 확정을 비롯한 그 구문의 특질을 규명하는 데에 무엇보다도 집중하였다.

### 참고문헌

- 김남탁. (1996). 성상형용사 구문의 구조 변천. *어문론총 30*. 경북어문학회.
- 김미형. (1989). 형용사의 의미 유형과 구문의 차이. *재효 이용주 박사 회갑 기념 논문집*. 서울: 한샘.
- 김영희. (1984). 하다 : 그 대동사 설의 허실. *배달말 9*. 경상대 배달말학회.
- 김창섭. (1985). 시각 형용사의 어휘론. *관악 어문 연구 10*.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 김홍수. (1989). *현대국어 심리동사 구문 연구*. 서울: 탑출판사.
- 서정수. (1975). 동사 '하'의 문법. 서울: 형설 출판사.
- 성광수. (1974). 국어 주어 및 목적어의 중출 현상에 대하여 (격문법적 고찰을 중심으로). *문법연구 1*. 서울: 탑출판사.
- 유현경. (1996). *국어 형용사 연구*. 박사학위 논문. 연세 대학교.
- 유현경. (2000). 국어 형용사의 유형에 대한 연구. *국어학 36*. 별쇄본. 국어학회.
- 최현배. (1937/1973). *우리 말본*. 서울: 정음문화사.
- Gross, Maurice. (1975). *Méthode en syntaxe*. Paris: Hermann.
- Guillet, Alain & Christian Leclère. (1981). Restructuration du groupe nominal. *Langage 63*, 99-126.
- Harris, Zellig. (1976). *Notes du cours de syntaxe*. In : M. Gross (trad.): Paris: Le Seuil.
- Nam, Jee-Sun. (1994). *Classification syntaxique des constructions adjectivales en coréen*. 박사학위논문. 파리 제 7 대학.
- Park, Byung-Su. (1974). *Complement Structures in Korean*. 서울: 백합출판사

정고스란

IGM. 5, Boulevard Descartes

77454 Champs-sur-Marne Cedex 2 France

전화 : + (33) 1 60 95 77 37 / (33) 6 21 38 97 07

이메일 : gchung@univ-mlv.fr

Received: 31 March 2003

Accepted: 2 May 2003

Revised: 16 May 2003